

‘함께 가자, 완주 · 전주 광역거점도시로’

전주시 자생 · 민간단체들, 출근길 홍보 캠페인 추진… 주민투표 권고 전까지 매일 진행

완주 · 전주 통합을 염원하는 전주지역 민간단체들이 통합논의 활성화를 위한 거리 홍보전에 나섰다.
전주시 새마을회(회장 송병용) 등 완주 · 전주 통합을 지지하는 자생 · 민간단체 회원들은 17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 전까지 매일 완주와 전주의 접경지역 주요교차로 8곳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동일 생활권인 완주와 전주가 양 지역으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출근길 집중 홍보를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캠페인은 △여의동 호남제일문네거리(삼례 방면) △혁신동 스포디움네거리(이서 방면) △송천동 송천역네거리(봉동 · 삼봉 방면) △호성동 차림등목



전주시 새마을회 등 완주 · 전주 통합을 지지하는 자생 · 민간단체 회원들은 17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 전까지 매일 완주와 전주의 접경지역 주요교차로 8곳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파네거리와 호성네거리(용진 방면) △우이동 우아네거리(소양 방면) △동서학동 송암교오거리(상관 방면) △평화동 알렌시아네거리(구이 방면) 등 완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서 진행됐다.

이번 참석자들은 ‘함께가자, 완주 · 전주 올림픽 개최도시로!’와 ‘함께가자 완주 · 전주 광역거점도시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통합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했다.

이와 관련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출근길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부서별 완주군 내 전통시장 정보기 행사 및 화식, 유사기능 부서간 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송병용 전주시 새마을회장은 “완주와 전주는 생활과 경제, 문화가 이미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라며 “통합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완주 · 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살아갈 광역도시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완주 · 전주 통합 절차 중지? 안될말” 완주 · 전주 통합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도내 지역 일간지 칼럼을 통해 ‘완주 · 전주 통합 절차 중지’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쓴 안호영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망 구축

전주시, 선제적 대응 · 안전교육 영상 제작 · 배포로 안전 강화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 등으로 인한 노인 일자리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주시가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노인 안전을 위한 교육과 노인 일자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19

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34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에 대한 접수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자가 진단과 안전교육 필수 이수, 사고 보고 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또한 시는 노인일자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안전 간담회를 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시니어클럽연합회와 협력해 노인들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해 19개 수행기관 및 34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동시에 시는 혹서기(6~9월)에는 △혹서기 물품 지원 △활동 시간 변경 △실내 활동 전환 △야외 활동 전면 중단 등 탄력적인 일자리 운영으로 무더위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폭염 예방 기본수칙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삶 조명

전주시, 19일~8월 12일 특별전시 ‘백년일로’ 개최

전주를 주 무대로 활동 중인 무형유산 기능보유자의 작품과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공개행사의 일환으로 무형유산의 가치와 장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인 ‘백년일로’를 개최한다.
올해 특별 전시는 ‘시간이 흐른 자리, 마음이 머물다’라는 주제로 ‘시간의 흐름’과 ‘마음의 정지’라는 두 감각의 교차를 통해 더욱 깊은 몰입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정교하게 배치된 보유자의 작품들이 서로 긴장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만큼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고요한 명상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는 크게 19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1부 전시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펼쳐지는 2부 전시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부 전시에는 △이의식(옷철장) △신우순(단청장) △윤규상(무산장) △최종순(약기장) △염재수(선자장) △이신임(전주낙죽장) △김혜미자(색지장) △변경환(전주배접장) △이명복(사기장) △박갑순(지호장) △최성일(지장) 등



평생 한길을 걸어온 11인의 전주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장인들이 참여한다.

이어진 2부 전시에는 △조정형(향토술담기) △방화선(선자장) △이종덕(방짜유기장) △최대규(전주나전장) △김종연(민속목조각장) △김선애(지승장) △김한일(야장) △박계호(선자장) △김선자(매듭장) △신애자(침선장) 등 10인의 전주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장인들의 삶이 깃든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전시에는 지난해 새롭게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이명복 사기장과 박갑순 지호장, 최성일 지장 보유자가 참여해 다양한 종류의 무형유산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아동발달 지연 조기발견 프로젝트 추진

전주시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10개소의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연계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는 지난해부터 성장 속도와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가의 진단 및 맞춤형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발달 지연 조기발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기존 차상위 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내 아동이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후 12개월~취학 전 아동을 둔 모든 가정으로 확대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아동 63명에 대한 발달 검사와 178회 치료 연계, 597구의 부모 상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됐다.

참여 가구의 주요 상담 내용은 △언어 지연 △주의력 결핍 △감정 조절 및 표현 부족 △미디어 중독 △부모와의 애착 및 관계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 아동발달 지연 조기발견 프로젝트는 1차로 아동발달 검사(K-CDD)와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K-FPSI)를 진행한 후, 2차로 부모 양육 환경에 대한 전문 상담과 아동 치료지원 전문 상담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된다.
시는 또 대상 아동 가구에 대한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을 지원해 양육 환경 개선도 함께 돕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1일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매월 선착순 20명씩 선정해 검사와 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